

광주 스포츠 '우울한 일요일'

광주FC 뼈아픈 자책골... 무패 마감



광주FC의 엄지성이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점유율 69%·슈팅 15개에도 전북에 0-1 패...파이널A 확정 미뤄



광주FC의 파이널A 확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광주가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31라운드 홈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69%의 점유율을 기록한 광주는 15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빗장을 잠근 전북의 수비 전략 속 후반 27분 기록된 두현석의 자책골로 무패행진을 '10경기'에서 중단했다.

전반 2분 만에 광주의 슈팅이 나왔다. 토마스가 중원에서 공을 잡아 전개된 공격, 엄지성이 왼쪽에서 슈팅까지 시도해봤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전반 7분 다시 한번 엄지성이 슈팅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날린 강력한 슈팅이 골대로 향했지만 상대 골키퍼 정민기의 호수비에 막혔다.

전반 20분에는 허술이 왼발 터닝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고, 23분에는 베카의 슈팅에 이어 흐른공을 잡은 아사시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이어 두현석까지 슈팅행진에 가세했지만 오른쪽 슈팅이 골대를 맞았다.

전반 30분 프리킥 상황에서 아사시가 키커로 나서 직접 슈팅을 선보였다. 하지만 공이 옆구리를 맞으면서 경기장에 아쉬운 탄성이 쏟아졌다.

40분 광주가 다시 프리킥 상황을 맞았다. 이번에도 아사시가 키커로 나서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광주가 아사시의 헤더로 후반전을 열었지만 후반 2분 전북 정태욱의 터닝 슈팅이 나오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이어 좋은 움직임으로 상대 공세를 막았던 이순민이 상대 수비진을 몰고 상대 박스 안까지 진입하면서 전북을 위협했다.

이후 전반 14분 두현석과 패스를 주고 받은 엄지성이 14분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공이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21분에는 김한길이 골대 오른쪽에서 시도한 헤더가 골키퍼에 막혔다.

몇 차례 공세가 무위로 끝난 뒤 후반 27분 광주의 골대가 뚫렸다. 전북 안현범의 슈팅이 나왔고, 골키퍼 김경민 앞에 있던 두현

석이 머리로 공을 쳐내려고 했지만 이게 광주 골대로 들어갔다. 후반 38분 다시 한번 광주가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두현석이 길게 띄운 공이 문전에 있던 이건희에게 연결됐다. 이건희가 슈팅을 시도하기에 앞서 전북 수비수 정태욱에 밀려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다.

후반 41분에도 광주가 아쉬움을 삼켰다. 이요름이 왼쪽에서 왼발로 띄운 공이 전북 골대 안으로 향했지만, 골키퍼 정민기의 수비에 막혀 득점이 무산됐다.

이후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건희가 골키퍼를 마주하고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나면서 경기는 0-1패로 끝났다.

한편 경기가 끝난 뒤 두 사령관은 '과정'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광주는 69%의 점유율로 15개의 슈팅(유효슈팅 7개)을 만들었고, 라인을 내리고 수비 전술로 나선 전북은 5개의 슈팅(유효슈팅 3개)에 그쳤다. 하지만 결과는 전북의 1-0 승리.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이 없던 전북 페트레스쿠 감독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면서 눈치싸움을 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승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서 좋았다.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풀어나갔다. 한 팀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결승전처럼 중요한 경기였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경기력 지적에도 결과를 이야기했다.

뜨거운 과정에도 결과를 만들지 못한 이장호 감독은 "모처럼 매진된 경기였다. 팬분들에게 많은 골을 넣어서 승리를 통해 즐거움을 줘야 하고 더 찾아오게 해야 했는데 찾아오신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수들은 공을 넣기 위해서,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했다. 위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다시 연패 늘...가을 야구 암울



최형우

KT 고영표에 막혀 2-3 패...최형우까지 부상 'PO 가시밭길'



'가을 잔치'를 노리는 KIA 타이거즈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KIA가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12차전에서 2-3패를 기록했다. 22일 KT와의 경기에서 9회말 2사 만루 위기를 넘고 2-1 승리로 7연패를 끊었던 KIA는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승리를 쟁기지 못하면서 연패에 빠졌다.

여기에 또 부상 선수가 발생했다. 나성범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고, 타선의 버팀목 최형우까지 왼쪽 쇄골 골절 부상을 당했다.

최형우는 이날 7회말 공격에서 타격을 한 뒤 1루 베이스로 전력 질주를 하다가, 1루수 박병호의 발에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진 결과 왼쪽 쇄골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KIA는 돌타자 박찬호에 이어 3·4번이 타석에서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양현종이 6이닝 1실점으로 기싸움을 해줬지만, KT의 막강 선발진에 막혀 이를 연속 KIA 타선이 고전했다. KIA는 전날에는 쿠에바스에 9회 1사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했다. 김도영의 3루타로 쿠에바스의 노히트를 깬 경기의 1-4 패배로 끝났다.

이날은 KT 선발 고영표에 막히면서 7회까지 침묵을 이어갔다. 양현종이 1회 1사에서 황재균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알포드를 삼진으로 잡았고 박병호는 3루 땅볼로 돌려 세웠다.

볼넷으로 시작한 2회, 장성우에게 중전안타도 내줬지만 무사 1·2루에서 김상수의 번트 타구가 뜨면서 포수 플라이 아웃을 만들었다. 스타트를 끊었던 2루수자 배정대까지 처리하면서 양현종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3회 선두타자 박경수의 타구가 2루 수구를 넘기면서 안타가 됐다. 폭투로 무사 2루, 양현종이 조용호와 황재균을 2루 땅볼로 처리했지만 알포드의 펜스를 강타한 3루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양현종은 4회에는 1사에서 장성우에게 2루타를 맞는 위기는

있었지만 추가 실점 없이 6회까지 책임졌다.

하지만 타선의 도움이 따르지 않았다. 고영표에 막혀 3회까지 KIA의 공격이 빠르게 끝났다. 4회 2사에서 고영우와 최형우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2사 1·3루가 됐지만 소크라테스의 타구가 높게 뛴고, 3루수 파울플라이가 기록됐다.

6회에는 이창진의 볼넷과 김도영의 안타도 나왔지만 이창진이 견제에 걸리면서 아웃카운트가 올라갔다.

7회에도 고영표가 마운드에 올랐다. 선두타자로 나선 최형우의 타구가 2루수 앞으로 향했다. 박경수가 뛰어올라 공을 잡은 뒤 1루로 송구했다. 그 사이 최형우가 전력 질주를 해 공보다 먼저 베이스에 도착했지만, 박병호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주자 박찬호가 들어간 뒤 김선빈의 좌전안타로 1사 1·2루는 만들었지만, 김태군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병살타로 7회가 끝났다.

고영표가 물러나고 손동현이 등판한 8회, KIA가 마침내 침묵을 깬다. 선두타자 이우성의 2루타로 시작해 김규성의 희생번트와 이창진의 2루 땅볼로 대주자 박경수가 3루까지 향했다. 폭투가 나오면서 KIA가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이때 볼넷으로 김도영까지 출루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지만, 김도영이 견제사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9회초 KIA가 임기영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공 5개로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임기영이 2사에서 이호연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박경수에게 중앙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허용하면서 1-3이 됐다.

9회말 KIA가 마지막 공세에 나섰다. 대타 한준수의 2루타로 1사 2루. 소크라테스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1점 차로 KT를 압박했다. 김선빈까지 안타를 장식하면서 1사 1·3루가 됐다. 하지만 김태군의 타구가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경기가 2-3패배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볼링 사전테스트이벤트 개최

11월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전남장애인체육회가 오는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볼링 종목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광양 메카볼링장과 월드볼링장에서 '2023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겸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테스트이벤트'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장애인볼링협회와 전남장애인볼링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겸 전국장애인체전 테스트이벤트 대회로 17개 시도 선수단 400여명이 참가했다. 전남도 선수단은 19명이 출전해 상대 팀과 경기

하며 기량을 점검했다. 경기는 지적, 뇌병변, 청각 경기와 시각, 지적 경기로 나눠 총 10경기로 진행됐다. 김은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양에서 볼링대회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갖고있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잠
2관	오픈하이머, 타겟, 힙노믹
3관	달짝지근해: 7510
4관	그란 투리스모
5관	가문의 영광: 리턴즈
6관	잠
9관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노크: 더 하우스
7관	씨네커피룸 콘크리트 유토피아, 폭로, 치악산
8관	씨네커피룸 타겟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9-01(금) ~ 30(토)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소리극 콜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